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구텐베르크 - 한 인간의 욕망이 낳은 혁명



김준목*

지난 1000년의 발명품 중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라 선정되었다. 당시 니콜라우스 쿠시누스가 주도한 단일성서 운동에 착안하

여 큰 돈을 벌고 싶어 제작한 성서는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쇄술은 훗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활판 인쇄기술이 18세기 계몽주의라는 인류의 지식욕구 분출과 맞물려 괴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상과 과학을 보급시켰으며 인류의 축적된 지식의 용광로가 되었다.

그는 우연히도 1397년 세종대왕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 한사람은 조선의 계몽군주로서 사대를 벗어나 주체적 문화를 개발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졌었고 다른 한사람은 조폐공으로서 대박의 꿈을 꾸며 활판기술을 보급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는 구텐베르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구 유럽의 계몽주의 보다 300년이나 앞섰던 세종대왕의 응지는 중국에 도전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사대주의 세력에

의하여 밟혀지고 200여년이 지난 영·정조 시대까지 미루어졌다.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독일어 성서는 당시 지식인들의 독점적 언어였던 라틴어로부터 민중의 언어로 전환이며 시민권리의 탄생을 알리는 혁명적 계기가 된 것이다.

구텐베르크 성서(42행성서)는 당시 최고의 인쇄물이란 세간의 평가를 받았으나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당시 비싸게 팔리던 필사본으로 팔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활자체도 필사한 모양과 비슷하게 했고 펜으로 이니셜을 추가하기 위한 공간도 남겨두었다. 그러나 파리에서 온 바이어가 이를 발견하여 그의 계획은 들통나고 말았다.

인문주의의 불꽃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발명가의 모습치곤 약간 고개를 흔들게 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힘들게 살았던 어린시절의 생활고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인츠에서 조폐공으로 종사하던 아버지의 봉급은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으며 부채는 나날이 늘어만 갔다. 구텐베르크도 10년 가까이 유독성 환경에서 죽어라 일만 했으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노점상도

* (안따꾸스) 주간, joonmok2000@yahoo.co.kr

하고 오목거울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돈을 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그에게 성서 제작은 대박의 꿈을 꾸게 만들기 충분하였다. 조폐국에서 근무할 때 주화를 찍기 위해 부형(patrx)으로 모형(matrix)을 찍어내는 작업에는 도가 통하였던 그는 이를 응용하여 활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부형은 글자의 원형에 해당하는데 끌로 강철을 깎아내어 글자를 볼록하게 만들어 낸다. 모형은 구리처럼 연한 재료로 만들어 지는데 부형을 놓고 약간의 힘으로 때리면 글자의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 모형에 합금을 녹여 부어 활자판을 만들었다. 이러한 활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배열해 조판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자판은 당시 올리브 오일을 짜거나 포도주를 압착할 때 사용하는 나사형 프레스를 활용하여 인쇄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텐베르크는 인쇄술의 발명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기 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잘 접목하여 인쇄를 시작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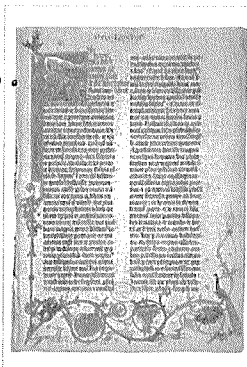
것 이라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구텐베르크의 사업적 감각이 아닐까?

그러나 42행성서의 급증하는 수요로 대박을 눈앞에 둔 그는 쓰디쓴 잔을 마시고 말았다.

인쇄설비와 일꾼을 준비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한 그의 사업파트너(푸스트)가 그를 의심하여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예약 받은 성서를 납품하고 큰돈을 질 수 있었던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알거지가 되고 만다. 뛰어난 그의 사업적 수완과 기술도 못된 동업자를 만난 탓에 빛을 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묻혀 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교육을 받은 많은 인쇄사들은 독일을 떠나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각지로 흩어져 인쇄소를 열고 출판시장을 활성화 시켰다.

인쇄술을 통하여 대박을 꿈꾸던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인류의 혁명적 발전에 공헌한 그의 결과물은 비록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그의 삶을 빛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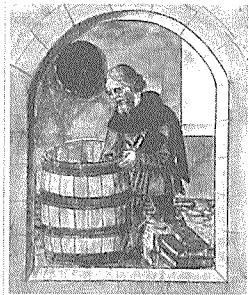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36행 성서(1458~1460년)〉



〈요스트 암만의 '세상의 직업들'에 실린 활자 주조공. 1568년 뉘른베르크〉



〈요스트 암만의 '카드의 책'에 실린 나사식 프레스. 1562년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 멘델의 12형제 하우스북에 실린 서책 거래상인 하인리히 케프너〉